



‘브라운 브라더스가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출시한 데일리 레인지’

에버톤 샤르도네

Everton Chardonnay

포도품종	샤르도네 100%		
알코올	13%	용량	750ml
테이스팅 노트	밝은 골드 컬러의 와인으로 코에서는 구아바와 복숭아향이 느껴지고 마지막엔 약간의 캐슈향도 느껴진다. 과일 캐릭터가 두드러지며 입안에서는 균형감있게 느껴지는 와인이다.		
페어링 TIP	흰육류/ 익힌 해산물/ 채소/ 익힌 채소/ 부드러운 치즈		



#호주/ #WHITE /#DRY

제품설명



에버톤은 해외시장을 위해 특별하게 창조된 레인지로 브라운 브라더스가 1950년에 구매했던 “Everton Vineyard”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현재는 더 이상 에버톤 재배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의 모험정신을 유지하고자 출시한 제품이다.

와이너리



호주 빅토리아 지역에서 1889년 와인생산을 시작하며 현재 125년의 역사를 간직한 가족 경영 와이너리이다. 2015년, 2016년 2년 연속 Austailan Drinks Awards에서 호주 국민이 사랑하는 와인 브랜드 1위에 선정되었으며 호주 내수 시장 모스카토 점유율 (35%) 1위, 호주와인 시장에서 Top 10 브랜드로 손꼽힌다. 브라운 브라더스의 모스카토, 시에나 등 후르티&스위티 와인은 호주의 젊은 소비자층이 가장 먼저 접하는 와인으로 손꼽히며 전 세계에서 높은 판매를 달성하고 있다. 현재는 브라운 브라더스의 4대 후손인 '캐서린 브라운'이 수석 와인 메이커로서 스위트한 와인부터 드라이한 와인까지 약 60개 이상의 제품을 출시하여 세계 각국에 선보이고 있으며 가족의 역사와 계승정신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